

‘ㄷ’의 음운론적 변화와 영남방언

오 중 갑*

<목 차>

- | | |
|------------|----------------|
| I. 서론 | III. 규칙의 전개 양상 |
| II. 변화의 실제 | IV. 결론 |

【요 약】

중세국어의 어두 음절 중성에 쓰인 ‘ㄷ’가 현대국어의 제 방언에서는 다양한 방언형(ʼyə, yɛ, yɜ, yi, yE, ye, e, E, ε, we, ö, ʉ, ə, ɜ, i, o, i, i ə, yɐ, ya, v, aʼ)으로 분화되어 실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화 과정에 적용된 음운규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밝히고, 또 각 지역(군 단위)에서 그들이 적용된 비율은 어떠한지를 통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각 규칙의 개신지와 그 전개 양상을 밝혀 보았다. 그 결과, ‘ㄷ(yə)’는 크게 두 방향으로의 변화를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하나는 y탈락규칙이 적용되어 ‘yə>ə’형으로 변화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y순행동화규칙이 적용되어 ‘yə>ye/e’형으로 변화되는 경우이다. 두 규칙의 개신파는 다 같이 한반도(남한) 전역에 전파되어 있는데, 그들의 개신지는 각각 충남지역과 영남지역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ㄷ’의 주음 ‘ㄷ’는 부음 y와 상관없이 ə>ɛ/ɜ/i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적용된 ə>ɛ 규칙, ə>ɜ 규칙, ə>i 규칙의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개신지는 각각 경북 북부지역, 경기도 동남부지역, 경기도 남부지역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I. 서론

1.1. 중세국어의 ‘ㄷ(yə)’는 현대국어의 제 방언에서는 ‘yə(yɛ, yɜ, yi), ye(yE), e(E, ɛ), ə(ɛ, ɜ), i’ 등의 다양한 형태들로 대응되어 방언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방언의 차이가 음운규칙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면, 현대국어의 제 방언에서 실현되는 이러한 방언형의 차이는 통시적으로 발달해 온 음운규칙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는, 통시적으로는 yə의 변화(주로 단모음화)에 대한 음운론적 기제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공시적으로는 각 방언에서 yə가 음소체계에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실현 환경은 어떠한지¹⁾ 등을 밝히는 데 관심을 집중하였다. 그래서 yə의 변화 과정에서 적용되었던 여러 가지 음운규칙이 방언의 분화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결과, 방언 상호간에는 yə의 변화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 그들의 변화와 관련된 규칙들의 개신지는 어디인지, 그들은 어디로 전파되어 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1) 영남방언에서의 ‘ㄷ’의 음소 설정 여부와 그것의 실현 환경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할 수 있다.

민원식(1982, 문경), 서보월(1984, 안동), 백두현(1985, 상주 화북), 김덕호(1992, 상주), 정철(1991, 의성), 최명옥(1980, 영해), 백두현(1982, 금릉), 이동화(1984, 고령), 권재선(1981, 청도), 최명옥(1982, 월성), 김택구(1991, 경남 전역), 박정 수(1993, 경남 전역), 박명순(1982, 거창), 최명옥(1998, 합천), 성인출(1984, 창녕), 이상규(1984, 울주), 전광현(1979, 함양), 배병인(1983, 산청), 이광호(1978, 진주), 구현옥(1998, 함안), 김영송(1973, 김해), 박지홍(1975, 양산), 박창원(1983, 고성), 김형주(1983, 남해) 등등.

는 거의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y\alpha$ 의 변화와 관련된 비교, 대조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방언 상호간의 수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방언 상호간의 비교, 대조에 의한 연구, 특히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비교, 대조가 부진한 것은 방언 자료의 수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다행히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한국방언자료집』을 간행함에 따라 각 지역 방언의 어휘, 음운, 형태 등의 연구는 물론이고, 이들의 비교를 통해 각 방언의 특성을 밝힐 수 있으며, 전국적인 언어지도의 작성을 통해 방언 상호간의 수수 관계를 밝히는 일이 가능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방언자료집』에 나타난 자료들을 활용하여 전국 언어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해석함으로써 $y\alpha$ 의 변화에 대한 전국적 양상을 파악하고, 그 양상 속에서 영남방언이 차지하는 위치를 밝혀 보고자 한다. 특히, $y\alpha$ 의 변화와 관련된 음운규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들이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규칙인지의 여부를 밝혀 보고자 한다. 만약 그것이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규칙일 때는 그것은 그대로 영남방언의 특징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을 때는 어디서 전파되어 왔는지 해명될 것이다.

그런데 어느 한 지역의 특정 어사에서 발생한 음운규칙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계속 확산되어 가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확산에도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각 지역의 해당 어사들에 음운규칙이 적용된 빈도를 조사, 비교하여 그 적용 정도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각 음운규칙의 전파 경로도 추정해 보고자 한다.

1.2. $y\alpha$ 의 통시적 변화, 주로 단모음화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논의는 대체로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y\alpha$ 가 음운도치에 의하여 αy 가 되고, 이것이 다시 축약되어 e 가 되었었다고 보는 견해(유창돈(1963:38), 김진우(1967), 이광호(1978),

최태영(1978)), 둘째는 $y\alpha$ 가 바로 축약되어 e 가 되었다고 보는 견해(허웅 1985 :526, 최명옥 1982:80-85), 셋째는 중세국어 ‘ㄷ’의 ‘ㄷ’는 그 음가가 α 가 아니라 e 에 가까운 α 였는데, 뒤에 단모음 e 가 확립되자 α 가 e 에 partager되어 $\ddot{e}$ 는 ye 가 되고, 이 ye 는 다시 y 가 탈락되어 e 가 되었다고 보는 견해(김완진 1963), 넷째는 ‘ㄷ’를 구성하는 두 개의 모음 성분 $|i|$ 와 $|\alpha|$ 가 상호 의존 관계에 있어 대등하게 결합하면 $|i, \alpha|$ 가 되어 $[e]$ 를 발생시키고, 부음성이 $|i|$ 에 있고 주음성이 $|\alpha|$ 에 있으면 $[y\alpha]$ 를 발생시키나 부음성이 약화 탈락되면 $[\alpha]$ 만 남게 되며, 주음성이 $|i|$ 에 있고 부음성이 $|\alpha|$ 에 있으면 $[\alpha]$ 가 약화 탈락되어 $[i]$ 가 나타나게 된다고 보는 견해(박종희(1993), 다섯째는 y 순행동화로 해석하는 견해(오종갑(1983), 최임식(1984), 백두현(1992)) 등이 있다.

(1)의 견해는 y 계 하향이중모음이 존재하던 시대의 문헌에서 이러한 예가 발견되지 않는 결함이 있고, (2)의 견해는 본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ㄷ>ㄷ’로의 축약 이전에 어사에 따라 ‘ㄷ>ㄷ’의 단계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일면적 타당성만을 지니고 있다. (3)의 견해는 체계적인 면에서 볼 때 ‘ㅌ, ㄲ, ㅍ’도 ‘ $\ddot{e}, \ddot{o}, \ddot{u}$ ’로 단모음화되었으므로 이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4)의 견해는 방언형 ‘ $y\alpha, ye, e, \alpha, i$ ’ 등을 동일 선상에 두고 두 개의 모음 성분 $|i|$ 와 $|\alpha|$ 로부터 공식적으로 유도해 낼 때는 타당성을 지닌 해석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통시적으로 볼 때, 이를테면, i 는 동일 방언 안에서 ‘ $y\alpha > ye > e > i$ ’의 과정을 거친 시차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모음 성분 $|i|$ 와 $|\alpha|$ 의 조작에 의해 $|i, \alpha| \rightarrow [y\alpha], [ye], [e], [\alpha], [i]$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모음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여 변화의 단계성을 무시한 점은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5)의 견해에 따라, $y\alpha$ 가 y 순행동화에 의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단모음 e 가 확립되기 전의 중세국어에서는 어사에 따라 y 순행동화를 삼중모음 $y\alpha y$ 로 수용하고, e 가 확립된 이후에는 어사에 따라 y 순행동화를 ye (혹은 e)로 수용하며, 이 e 는 다시 모음상승

에 의해 i로 변화된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y\alpha > y\alpha y > ye > e > i$, $y\alpha > ye > e > i$, $y\alpha > e > i$).

II. 변화의 실제

중세국어에서 어두 음절의 중성에 ‘ㄷ($y\alpha$)’를 가지고 있던 25개 어사들 — 겨(糠, 법화 2:28), 겨드랑(겨드랑(腋), 언두 하43), 겨울(겨슬(冬), 월석 1:26), 겹옷(袂, 두초 7:38), 곁(邊, 월곡 46), 며느리(婦, 석보 6:7), 멀치(<멀티, 물명 2:5), 베개(<벼개(枕), 법화 2:73), 벼락(霹, 두초 18:19), 벼룩(<벼룩(蚤), 훈몽 상12), 벼슬(官, 석보 9:23), 병(瓶, 구간 6:24), 뼈(<뼈(骨), 능엄 2:5), 설흔(<설흔(三十), 두초 8:21), 쇠다(<쇠다(哀), 석보 6:44), 여럿(<여럿(諸), 능엄 10:23), 여우(<여스(狐), 월곡 70), 여자(<녀자(女子), 오륜도 3:36), 열(<열(十), 두초 22:50), 영감(<녕감<령감(令監)²⁾, 젊다(<점다(少), 석보 6:10), 젖(<젖(乳), 능엄 7:17), 처녀(<처녀(處女), 二倫重 43), 혀(舌, 훈민 해례:21), 형(兄, 속삼 효:22) — 의 ‘ㄷ’가 현대국어에서는 운소를 무시하면 ‘ $y\alpha$, $y\mathfrak{A}$, $y\mathfrak{z}$, $y\mathfrak{i}$, yE , ye , e , E , ε , we , $\ddot{o}$, $\mathfrak{A}$, $\mathfrak{a}$, $\mathfrak{z}$, i , o , i , $i\mathfrak{a}$, $y\mathfrak{v}$, ya , v , a ’의 22유형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들은 ‘ㄷ’의 부음 y 가 유지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y 유지형과 y 탈락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다시 부음 y 가 주음 $\mathfrak{a}$ 의 변화에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은 y 무위형(無爲型)과 주음의 변화에 동화력을 행사한 y 순행동화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기술의 편의상 y 무위형, y 순행동화형, y 탈락형, 기타의 네 유형으로 크게 나누어 ‘ㄷ’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영감’은 중세국어 자료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증유합 하9>에서 ‘슈 령 령’으로 훈과 음이 달려 있고, <삼역총해 5:14>에서는 “님금의 녕을 바다서”처럼 표기된 것으로 보아 ‘令監’의 ‘令’은 그 음이 어두에서 ‘령>녕>영’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1. y무위형

이 유형에 속하는 방언형으로는 $y\alpha$, $y\mathfrak{A}$, y_3 , y_i 등이 있다.

$y\alpha$ 형은 중세국어의 형태가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않고 현대국어에 그대로 이어진 것인데, 영남(경북 영덕, 경남 함양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 유형이 실현되나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실현되고 있다.

$y\mathfrak{A}$ 형은 $y\alpha$ 형의 α 가 모음상승에 의해 $\alpha > \mathfrak{A}$ 변화를 경험한 것이다. 앞의 25개 어사에서 $y\alpha > y\mathfrak{A}$ (또는 $\alpha > \mathfrak{A}$)로 변화된 어사들의 도별 실현 빈도를 종합해 보면, 경북의 23개 군 전역(울릉군 제외)과 경남의 18개 군(함양 제외)에서만 $\alpha > \mathfrak{A}$ 변화를 경험하고 여타의 도에서는 이 변화를 경험한 군이 한 곳도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alpha > \mathfrak{A}$ 변화의 개신지는 영남 지역이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나, 영남 지역 중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그 개신파가 발생했는지를 추정해 보기 위해 각 군별로 경험한 $\alpha > \mathfrak{A}$ 변화의 빈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1]과 같고,³⁾ 그것을 지도에 표시하면 부록의 [지도 1]과 같다.

[표 1] $\alpha > \mathfrak{A}$ 변화의 빈도

군명	비율 (%)	군명	비율 (%)	군명	비율 (%)	군명	비율 (%)	군명	비율 (%)	군명	비율 (%)	군명	비율 (%)
영풍	61	영양	58	선산	54	영천	52	합천	52	의령	56	양산	52
봉화	62	상주	60	군위	52	고령	56	창녕	46	하동	56	사천	52
울진	58	의성	52	영일	58	달성	57	밀양	51	진양	56	고성	52
문경	56	청송	57	성주	48	청도	57	울주	48	함안	46	남해	48
예천	60	영덕	59	칠곡	61	월성	51	함양	0	의창	54	통영	50
안동	63	금릉	56	경산	48	거창	56	산청	56	김해	46	거제	52

위의 [표 1]과 [지도 1]에 의하면, 가장 높은 60%대의 실현율을 보이

3) 25개의 어사가 지역별로 $y\alpha > y\mathfrak{A}$ ($\alpha > \mathfrak{A}$) 변화를 경험한 어사의 수를 조사한 다음 그 백분율을 구했으나 지면 관계상 실현 어사의 수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하 동일.

는 지역은 경북의 영풍, 봉화, 예천, 안동, 상주, 칠곡으로서 칠곡을 제외하면 대체로 경북의 북부에 속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alpha > \gamma$ 변화의 개신지가 경북 북부 지역이며, 이 개신파가 일찍부터 남쪽으로 전파되어 영남 전역에서 높은 실현율을 보이게 된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⁴⁾

y_3 형은, $y\gamma$ 형의 경우와는 반대로, $y\alpha$ 의 α 가 모음하강에 의해 $\alpha > \gamma$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북도에서만 실현되는데, 다음에서는 $\alpha > \gamma$ 변화의 개신지가 어디인지를 추정해 보기로 한다.

앞의 25개 어사들의 방언형 가운데 $y\alpha$ 가 y_3 로 변화된 것과 y_3 에서 y 가 탈락되거나 또는 $y\alpha$ 에서 y 가 탈락된 다음 다시 α 가 γ 로 변화된 것으로 해석되는 어사들의 도별 실현 빈도를 종합해 보면, 경기도에서는 14/19개 군, 충북에서는 6/10개 군, 충남에서는 14/15개 군, 전북에서는 1/13개 군에서 $\alpha > \gamma$ 변화를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변화를 경험한 군의 수로만 보면 충남 지역이 $\alpha > \gamma$ 변화의 개신지로 추정될 만하다.

그러나 실현 어사의 총수를 실현 군의 수로 나눈 평균치가 경기도는 3.5개, 충북은 2.8개, 충남은 2.0개로 나타나 오히려 경기 지역이 더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별 군의 실현율로 볼 때도 그 실현율이 36%로서 가장 높은 지역이 경기도 양평이고, 그 주변 지역인 용인, 안성, 광주, 남양주, 시흥 등지에서 20%대의 실현율을 보여 중심지를 이루므로 대체적으로 보아 경기도의 동남부지역이 개신의 중심지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충남북과 전북의 옥구에서 $\alpha > \gamma$ 변화를 보인 것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개신파가 이들 지역에 전파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alpha > \gamma$ 변화의 실현 지역과 그 빈도를 표로 보이면 [표 2]와 같고, 그것

4) 오종갑(1999)에서는 ‘거울, 걸, 늪다, 더럽지, 덜(小), 머리, 먹지, 버릇, 벌(蜂), 없다, 어머니, 젓, 처녀, 털, 허리, 형겔’의 16개 어사에 사용된 ‘ㄴ’의 방언형들을 통계적으로 처리한 결과 $\alpha > \gamma$ 변화의 개신지가 경북 북부 지역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을 지도에 표시하면 부록의 [지도 2]와 같다.

[표 2] ə>ɜ 변화의 빈도

군명	비율 (%)	군명	비율 (%)	군명	비율 (%)	군명	비율 (%)	군명	비율 (%)	군명	비율 (%)	군명	비율 (%)
연천	4	양주	16	화성	18	음성	10	서산	12	홍성	4	부여	8
파주	4	남양	20	용인	20	증원	28	당진	8	청양	16	서천	8
강화	4	시흥	24	평택	4	청원	4	아산	4	공주	10	논산	8
김포	4	광주	20	안성	20	괴산	10	천원	12	연기	4	대덕	4
고양	4	양평	36	진천	12	영동	4	예산	8	보령	8	옥구	4

yɨ형은 yə형의 ə가 장음의 환경에서 ə>i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영:감’ 한 어사에서만 나타나는데, 이 유형의 실현 지역에는 경기(17%), 강원(7), 충북(전역), 충남(전역), 전북(2)이 있다. 그런데 동일한 장음의 환경에서 ə>i 변화를 경험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으므로 그 분포가 어떠한지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앞의 25개 어사 가운데 장음의 환경에서 ə>i 변화를 경험한 어사로 는 ‘영:감’ 이외에 yɨ형에서 y가 탈락되어 i로만 실현되는 ‘썰:다, 젊:다, 처:녀’ 등도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방언에서 단음으로 실현되는 ‘겨울’ 이 장음으로 실현되어 ə>i 변화를 경험한 지역도 있어 앞의 25개 어사 가운데 ə>i 변화를 경험한 어사에는 ‘영감, 썰다, 젊다, 처녀, 겨울’의 다섯이 된다. 그런데 이들만으로 ə>i 변화의 개신지를 추정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적어 이들과 함께 《한국방언자료집》의 자료들 중에서 지역에 따라 ə>i 변화를 경험한 방언형을 가진 어사 ‘겨들+어, 거머리, 건너+어, 더럽+지, 덜(小), 뚝+어서, 섬(島), 성(姓), 얼+ㄴ다(凍), 얼마, 열+지(開), 젓+지(槽), 형겅’을 추가한 18개의 어사들이 경험한 ə>i 변화의 군별 빈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3]과 같고⁵⁾, 그것을 지

5) () 안의 수치는 해당 방언형이 실현되는 군의 수를 가리킨다. 이하 같음.

6) 지면 관계상 ə>i 변화를 경험한 어사가 한 개도 없는 지역은 표에서 제외시켰다.

도에 표시하면 부록의 [지도 3]과 같다.

[표 3] $\text{a} > \text{i}$ 변화의 빈도

군명	비율 (%)	군명	비율 (%)	군명	비율 (%)	군명	비율 (%)	군명	비율 (%)	군명	비율 (%)	군명	비율 (%)
연천	61	광주	44	양구	67	영월	69	보은	64	공주	50	완주	44
파주	72	양평	72	인제	76	정선	50	옥천	56	연기	58	진안	8
포천	83	화성	72	고성	20	삼척	56	영동	50	보령	39	무주	47
강화	72	용인	81	춘성	69	진천	58	서산	67	부여	50	김제	28
고양	78	이천	83	홍천	71	음성	75	당진	67	서천	71	부안	33
양주	67	여주	67	양양	19	증원	75	아산	61	논산	44	정읍	28
남양	36	평택	67	횡성	80	제원	67	천원	61	대덕	61	고창	28
가평	69	안성	72	평창	63	단양	67	예산	61	금산	29	신안	12
용진	69	철원	53	명주	44	청원	47	홍성	64	옥구	39	송주	6
시흥	78	화천	69	원성	75	괴산	69	청양	67	익산	33	영암	6

위의 [표 3]에 의하면, 경기도에서는 18/19개 군에서 $\text{a} > \text{i}$ 변화를 경험하였는데, 18개 군에서 변화된 비율의 평균치는 69%이고, 강원도에서는 15개 군 전역에서 59%, 충북에서는 10개 군 전역에서 63%, 충남에서는 15개 군 전역에서 57%, 전북에서는 9/13개 군에서 32%, 전남에서는 3/22군에서 8%, 경북에서는 1/23개 군에서 17%, 경남에서는 0/19군에서 0%이므로 그 빈도는 경기>충북>강원>충남>전북>경북>전남>경남의 순으로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실현 빈도의 차이는 $\text{a} > \text{i}$ 변화의 개신지가 경기 지역일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개별 군을 중심으로 $\text{a} > \text{i}$ 변화의 빈도를 보면, 가장 높은 80%대의 적용률을 보이는 지역이 경기도의 이천(83%), 포천(83%), 용인(81%)과 강원도의 횡성(80%)인 점으로 보아 경기도 중에서도 이천과 용인을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이 이 변화의 개신지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이들 지역의 남쪽 지역인 안성과 충북 음성, 서쪽 지역인 화성, 시흥 등지에서 70%의 적용률을 보이고 또 그 주변 지역에서는 60~50%의 적용률을 보여 방언 전파의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 주

기 때문이다.⁷⁾

이상에서 살펴본 ‘yə, yɤ, yɜ, yi’형은 반모음(부음) y를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후행 단모음(주음)에도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이들을 묶어 y무위형으로 유별하고 이 유형의 실현 양상과 선행자음의 유무 및 종류와는 어떠한 상관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선행자음이 없는 경우⁸⁾에는 전국에서 ‘ㄷ’가 y무위형으로 실현된 비율이 98.7%이고, 선행자음이 있는 경우에는 y무위형으로 실현된 비율이, 순음의 경우는 18.8%, 경구개음(또는 경구개음화된 음) ‘ㅅ, ㅈ, ㅊ’의 경우는 0%, 연구개음의 경우는 58.7%, 성문음의 경우는 26.3%이다. 즉 선행자음 없음>연구개음>성문음>순음>경구개음의 순서로 y무위형의 실현율이 낮아지는데, 이것은 역순으로 ‘ㄷ’의 변화가 더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y순행동화형

이 유형에 속하는 방언형에는 ye, yE, e, E, ɛ, we, ö, i 등이 있다.

ye형은 yə형의 ə가 선행 y에 순행동화되어 e로 바뀐 것이고, yE형은 ye형의 e가 e>E 변화를 경험한 것인데, 이 둘은 다 같이 y순행동화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7) 김정태(2004)에서는 천안 방언에서 실현되는 ‘ə→ɨ’의 모음상승을 중부방언의 한 특징으로 보았으며, 이 상승은 장모음 [a:]에서는 필수적으로 일어나나 비어두의 [a]에서는 수의적으로 일어남을 보고하였다.

8) ‘여자(<녀자), 영감(녕감<령감)’은 원래 어두 자음을 가진 어사였지만 두음법칙의 적용으로 인한 재구조화에 의해 어두 자음이 소멸되었으며,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변화의 실태도 어두 자음을 가지지 않은 어사들과 특이한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두 자음을 가지지 않은 어사와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e형은 yə가 y순행동화에 의해 ye가 된 다음 다시 y가 탈락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yə가 y순행동화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축약되어 e가 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어느 과정의 변화를 겪었는지 쉽게 판단되지 않는다. 그런데 후자의 축약을 선행 y의 전설성이 후행 모음에 영향을 주어 그것을 전설화시킴과 동시에 자신은 탈락된 것으로 해석한다면 후자의 경우도 y순행동화에 의해 ye가 된 다음 y가 탈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후자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y순행동화를 경험한 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후자를 다 같이 y순행동화형으로 다루기로 한다.

E형과 ε형은 e형과 동일한 변화 과정을 겪었으나 다시 e>E, e>ε 변화를 더 경험하였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 역시 y순행동화를 경험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게 취급된다. 그리고 i형은 e형이 다시 e>i 변화⁹⁾를 경험한 것인데 이것 역시 y순행동화를 경험한 점에서는 동일한 부류로 묶어진다.

y순행동화를 경험한 유형에는 we형과 ö형도 추가된다. we형은 ‘혀’의 방언형이 충북 단양에서 실현될 때 나타난 유형인데, 거기에서 ‘혀’의 방언형에 swe와 syi(<se)가 병존하는 것으로 보아 syi의 전단계 형태인 se가 원순이중모음화되어 swe가 나타난 것¹⁰⁾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ö형 역시 ‘혀’의 방언형이 경기도(포천, 강화, 남양주, 시흥, 광주, 양평, 화성, 이천), 강원도(철원, 원성), 충북(음성, 증원, 괴산, 보은), 전북

9) 오종갑(1999)에서 e>i 변화는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ε>E 변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ε가 E로 상승하여 이것이 음운체계에 구조적 압력으로 작용하자 경북지역에서는 주로 e가 i로 상승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경남지역에서는 오히려 e가 E로 하강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으로 보았다.

10) 광충구(1982)에서는 아산방언에서 단모음 ‘어(a)’가 원순이중모음 ‘위(wə)’로 바뀐 예들을 제시하고 ○ | △다.

‘어제→위:제, 어디→위:디, 얼마→월(:)마, 언제→원:제, 어느 때→위:느때, 어떻게→위:티기’

(무주) 등지에서 실현될 때 나타난 유형인데, 경기도의 남양주와 이천 등지에서 sō형과 se형이 병존하는 것으로 보아 se가 원순모음화에 의해 sō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¹¹⁾

각 방언형이 역사적으로 변화되어 온 과정을 표로 보이면 [표 4]와 같다.

[표 4] y순행동화형의 변화 과정

기저형	y순행동화	y탈락	e>E/ε	원순모음화	e>i	방언형
yə	ye					ye
yə	ye		yE			yE
yə	ye	e				e
yə	ye	e	E			E
yə	ye	e	ε			ε
yə	ye	e		we/ö		we/ö
yə	ye	e			i	i

ye형이 실현되는 지역에는 경기(2), 강원(3), 전북(1), 전남(2), 경북(1)이 있고, yE형이 실현되는 지역에는 전북(1), 전남(1), 경북(5), 경남(1)이 있는데, 이 두 유형이 실현되는 지역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 이유는 현대국어에서 CyV와 같은 분절음의 연결이 제약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e형은 경기(전역), 강원(전역), 충북(단양을 제외한 전역), 충남(전역), 전북(전역), 전남(12), 경북(6), 경남(10), 제주(전역)에서 실현되는데,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그 실현 빈도가 낮다. 그 이유

11) we형과 ö형에서 전자는 이중모음이고, 후자는 단모음이라는 차이는 있으나 둘 다 원순모음화되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특히 충북 지역에서는 이 두 형태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이 둘이 수의적으로 나타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변해 가는 과도기를 반영한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필자는 ‘니(oy)’의 단모음화 과정을 ‘oy>wəy>we>ö’로 보는 입장이므로(최전송: 1987 참조), 여기서도 양자의 공존은 we형이 ö형으로 변해 가는 과도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는 이들 지역에서는 $e > E$ 변화를 경험한 E형이 많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E형이 실현되는 지역에는 경기(2), 강원(1), 충북(1), 전북(1), 전남(10), 경북(21), 경남(13)이 있는데, 경북, 경남, 전남 지역에서 그 실현 빈도가 높다. ε 형은 전남(3), 경북(2)에서 실현되기는 하나 그 세력은 미약하다.

we형은 충북(1)에서, ö형은 경기도(8), 강원도(2), 충북(4), 전북(1)에서 실현되는데, 비록 ‘혀’ 한 어사에 한정되기는 하나 경기도와 충북의 상당수 지역에서 원순모음화를 경험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i형은 경기(0), 강원(8), 충북(8), 충남(2), 전북(남원을 제외한 전역), 전남(구례를 제외한 전역), 경북(전역), 경남(전역), 제주(1)에서 실현되는데,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를 포괄하는 남부 지역에서는 거의 전역에서 이 유형이 실현되나 경기도에서는 한 지역에서도 실현되지 않으며 충남에서도 실현 지역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ye, yE, e, E, ε , we, ö, i의 실현 지역은 다 같이 y순행동화를 경험한 지역이란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이들을 종합해 보면 전국 138개 군(울릉군 제외) 전역에서 y순행동화를 경험한 형태가 실현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동일한 y순행동화형이라도 선행자음의 유무와 선행 자음의 성질에 따라 그 실현 양상에 차이가 있으므로 다음에서는 y순행동화형이 선행자음의 유무나 선행 자음의 성질에 따라 그 실현 양상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선행자음이 없는 ‘여자, 영감, 여럿, 여우, 열’의 5개 어사가 138개 군에서 y순행동화형으로 실현 가능한 방언형의 총수는 690개가 된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다른 어형으로 실현되어 비교가 불가능한 21.5개의¹²⁾ 방언형을 제외하면 비교 가능한 방언형의 총수는 668.5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9개(ye 5, yE 0.5, E 3.5)만이 y순행동화형으로 실현되어 그 실현 비율이 1.3%에 지나지 않는다.

선행자음이 순음인 경우(‘머느리, 멸치, 베개, 벼락, 벼룩, 벼슬, 병,

12) 한 군에서 두 개의 방언형이 병존할 때는 0.5로 계산하였다.

빠')에는 비교 가능한 방언형 1097개 가운데 873.5개가 y순행동화형으로 실현되어 그 실현 비율이 79.6%에 이른다.

선행자음이 경구개음(혹은 경구개음화된 음) ‘ㅅ, ㅈ, ㅊ’인 경우(‘설, 혼, 삶다, 젊다, 젓, 처녀’)에는 비교 가능한 방언형이 기타의 24개를 제외한 666개이다. 그리고 원래 선행자음이 연구개음 ‘ㄱ’이던 어사들 가운데 일부인 370.5개 어사(y탈락형)는 먼저 ‘ㅈ’로 구개음화된 다음 후행의 ‘ㄷ’가 변화를 경험하고, 선행자음이 ‘ㅎ’인 어사들 가운데서도 일부인 87.5개 어사(y탈락형)는 먼저 ‘ㅅ’로 구개음화된 다음 후행의 ‘ㄷ’가 변화를 경험하므로 뒤의 두 경우도 선행자음이 경구개음인 어사들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세 경우를 합하면 선행자음이 경구개음인 경우로서 비교 가능한 방언형은 1124개인데, 이들 가운데 y순행동화형으로 실현된 어사의 수는 0개로서 그 실현율은 0%이다. 경구개음 뒤에서 y순행동화형이 실현되지 않는 것은 선행자음과 후행 ‘ㄷ’의 y가 공통으로 지닌 [+palatal] 자질의 중복으로 말미암아 y가 동화력을 발휘하기 전에 탈락되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선행자음이 경구개음인 경우에는 후행의 ‘ㄷ’가 y순행동화형으로 실현된 예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래의 ‘ㅅ, ㅈ, ㅊ’가 아니고 구개음화를 거친 ‘ㅅ(<ㅎ), ㅈ(<ㄱ)’이 선행하는 경우(‘혀, 형’)에는 경기(전역), 강원(12), 충북(9), 충남(2), 전북(4), 전남(13), 경북(22), 경남(16), 제주(전역)에서, 구개음화를 거친 ‘ㅈ(<ㄱ)’이 선행하는 경우(‘겨, 겨드랑, 겨울, 겹옷, 겹’)에는 경기(1), 강원(11), 충북(2), 전북(3), 전남(11), 경북(6), 경남(1), 제주(전역)에서 y순행동화를 경험한 예가 발견되어 전자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ㅅ(<ㅎ), ㅈ(<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ㅅ, ㅈ, ㅊ’를 지녔던 어사와는 달리, 구개음화규칙이 적용된 다음에 y순행동화규칙과 y탈락규칙이 경쟁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ㅅ(<ㅎ), ㅈ(<ㄱ)’에 결합된 ‘ㄷ’가 경쟁적으로 y순행동화규칙과 y탈락규칙의 적용을 받았다고 할 때는 y탈락규칙의 적용을 받는

‘혀>셔>서, 거>저>저’ 등의 경우에는 해석상의 어려움이 없으나 y순행동화규칙의 적용을 받는 ‘혀>셔>세>세, 거>저>제>제’ 등의 경우에는 ‘셔, 저’의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y탈락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2.3 참조) ‘ㄷ>ㄷ’과 같은 과정 자체가 설정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y순행동화형이 실현되는 지역에서는 구개음화규칙보다 y순행동화규칙을 먼저 경험한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선행자음이 연구개음 ‘ㄱ’일 경우(‘겨, 겨드랑, 겨울, 겹옷, 겹’)에는 어사에 따라 실현 방언형에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종합해 보면, ya는 ye, e, E, ε, i의 다섯 유형으로 변화되어 실현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구개음화를 경험한 ‘ㅈ(<ㄱ)’가 선행될 때는 e, E, ε, i의 네 유형으로만 실현되어 전자에서 실현되던 ye가 후자에서는 실현되지 않는 차이가 있음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경구개음 뒤에서 y탈락규칙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겨’의 방언형 ‘제, 지’와 같은 형태는 현대방언에서는 선행자음이 경구개음 ‘ㅈ’이지만 y순행동화를 경험하던 당시의 선행자음은 모두 연구개음 ‘ㄱ’이었던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행자음이 연구개음인 경우는 방언형에서 ‘ㄱ’ 그대로 실현되는 256.5개에서 기타의 11개를 제외한 245.5개의 어사와 구개음화에 의해 ‘ㅈ(<ㄱ)’로 실현되는 어사 중 y순행동화를 경험한 38개의 어사를 합친 283.5개가 비교 가능한 어사의 총수가 된다. 그런데 이 어사들 가운데 y순행동화형으로 실현된 어사는 선행자음이 ‘ㄱ’일 때의 78개와 선행자음이 ‘ㅈ(<ㄱ)’일 때의 38개를 합친 116개이므로 y순행동화형으로 실현된 비율은 40.9%가 된다.

선행자음이 성문음 ‘ㅎ’일 경우(‘혀, 형’)에 결합된 ‘ㄷ’가 y순행동화를 경험한 경우에도, 앞의 연구개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yE가 ‘ㅎ’ 뒤에서는 실현되나 ‘ㅈ(<ㅎ)’ 뒤에서는 실현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 후자에서 yE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y순행동화규칙이 먼저 적용된 다음 구개음화규칙이 적용되고, 다시 y탈락규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혀’나 ‘형’의 ‘혀’가 방언형에서 sE, sE, swe, sō, syi 등으로 실현된 것은 모두 ‘ㅅ’가 아닌 ‘ㅎ’ 뒤에서 y순행동화를 경험한 것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선행자음이 성문음인 경우는 방언형에서 ‘ㅎ’ 그대로 실현되는 89개의 어사와 구개음화에 의해 ‘ㅅ(<ㅎ)’로 실현되는 어사 중 y순행동화를 경험한 99.5개의 어사를 합친 188.5개가 비교 가능한 어사의 총수가 된다. 그런데 이 어사들 가운데 y순행동화형으로 실현된 어사는 선행자음이 ‘ㅎ’일 때의 33.5개와 선행자음이 ‘ㅅ(<ㅎ)’일 때의 99.5개를 합친 133개이므로 y순행동화형으로 실현된 비율은 70.5%가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y순행동화는 순음(79.6%)>성문음(70.5%)>연구개음(40.9%)>선행자음 없음(1.3%)>경구개음(0%)의 순서로 그 적용률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의 관심사는 선행자음의 유무나 선행자음의 종류가 이러한 적용률의 차이를 가져온 음운론적 기제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다음에서는 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구강에서의 조음위치를 다섯 개의 조음점으로 나누어 각 조음점 사이의 거리를 1로 볼 때, pyə는 ‘양순→치조→경구개(전설)→연구개(후설)’의 과정을, hyə는 ‘성문→연구개→경구개(전설)→연구개(후설)’의 과정을, kyə는 ‘연구개→경구개(전설)→연구개(후설)’의 과정을 거쳐 조음되므로 그 거리는 각각 3, 3, 2가 된다. 그리고 yə는 ‘경구개(전설)→연구개(후설)’의 과정을 거쳐 조음되므로 그 거리는 1이 된다. 조음 과정에서 보이는 이러한 거리의 차이는 그대로 조음의 난이도와 직결되는데, 이것이 ‘ㄷ’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하면, yə<kyə<hyə, pyə의 순서로 조음 거리가 멀어 조음에 더 힘이 들므로 변화의 순서는 이것과는 역순으로 조음에 더 힘이 드는 것부터 더 먼저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동일한 조음 거리를 가진 hyə와 pyə의 경우에는 후자의 조음이 전자의 조음보다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실현률에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¹³⁾ 경구개음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y탈락규칙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

에 y순행동화규칙은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3. y탈락형

y탈락형에 속하는 유형으로는 ə, ʌ, ɜ, i, o 등을 들 수 있다.

ə형은 ya형에서 y가 탈락된 것이고, ʌ, ɜ, i형은 각각 ə>ʌ, ə>ɜ, ə>i 변화를 경험한 것임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 있다. ə형은 경북(전역)과 경남(함양을 제외한 전역)을 제외한 남한 전역에서, ʌ형은 경북(전역), 경남(함양을 제외한 전역)에서, ɜ형은 경기(9), 충북(4), 충남(12), 전북(1)에서, 그리고 i형은 경기(17), 강원(10), 충북(전역), 충남(전역), 전북(5)에서 실현된다. o형은, 충남(아산, 논산)에서 ‘벼개’의 y가 탈락되어 ‘벼개’로 실현된 예가 발견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벼개’의 ‘ㄷ’가 순음 아래서 다시 원순모음화(ə>o)되어 ‘보개’가 됨으로써 나타난 유형으로 해석된다.¹⁴⁾ 이 유형이 실현되는 지역에는 경기도(남양주, 이천), 충남(서천)이 있다.

y탈락형은 선행자음이 없는 경우에는 비교 가능한 방언형 668.5개 가운데서 한 개의 예도 실현되지 않아 0%의 실현율을, 선행자음이 순음인 경우에는 비교 가능한 방언형 1097개 가운데 17개가 실현되어 1.6%의 실현율을 보인다. 순음일 경우 y가 탈락된 어사는 ‘벼개’에 한정되어 있는데, 그 방언형은 ‘벼개(<벼개)’로 실현된다. 선행자음이 경

13) 허웅(1985:27)에서 “[h] 소리는 ----- 꼭 목청에서만 나는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상당히 넓은 입안 통로를 공기가 지나갈 때에 인두나 입안 통로의 전체에서 같이가 일어나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한 것은 [pyə]보다는 [hyə]의 발음이 용이함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4) 이병근(1979)에서는 경기방언에 나타난 ‘ㄷ>ㄷ’ 비원순모음화 현상(‘몬져>먼저, 보리>벼리’)을 근거로 ‘ㄷ:ㄷ’의 대립을 원순성의 유무에 의한 대립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는 ‘ㄷ>ㄷ’를 원순모음화로 보는 여기서의 설명이 타당성이 있음을 뒷받침해 준다.

구개음일 경우에는 비교 가능한 방언형 1124개가 모두 y탈락형으로 실현되어 100%의 실현율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경구개음과 ‘ㄷ’의 y가 지닌 [+palatal] 자질이 중복됨으로 말미암아 y가 탈락되었기 때문이다.

선행자음이 경구개음일지라도 원래의 ‘ㅅ, ㅈ, ㅊ’가 아니고 구개음화를 거친 ‘ㅅ(<ㅎ), ㅈ(<ㄱ)’가 선행할 경우에는 ‘ㄷ’의 방언형은 y탈락형(‘ㄷ’)과 y순행동화형(‘ㄷ’)의 둘로 실현되는데, 그것은 일률적이라기보다 지역이나 어사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구개음화규칙이 먼저 전파된 지역이나 어사에서는 구개음화규칙이 적용된 다음 필수적으로 y탈락규칙이 적용되나 구개음화규칙이 늦게 전파된 지역에서는 y순행동화규칙이 먼저 적용된 다음 구개음화규칙과 y탈락규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같이 구개음화를 경험한 ‘ㅈ(<ㄱ), ㅅ(<ㅎ)’를 선행시킨 ‘ㄷ’가 y탈락형과 y순행동화형으로 달리 실현되는 과정의 차이를 방언형 ‘저(<겨), 제(<겨)’와 ‘서(<혀), 세(<혀)’를 예로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겨/	/혀/	(2)	/겨/	/혀/
구개음화	저	서	y순행동화	계	혜
y탈락	저	서	구개음화	제	세
	[저]	[서]	y탈락	제	세
				[제]	[세]

선행자음이 연구개음일 때는 비교 가능한 방언형 283.5개 가운데 오직 1개의 예에서 y가 탈락되어 0.4%의 탈락률을 보이고, 선행자음이 성문음일 때는 비교 가능한 방언형 188.5개 가운데 6개의 예에서 y가 탈락되어 3.2%의 탈락률을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y탈락형의 경우 선행자음의 유무와 그 성질에 따라서 탈락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경구개음이 선행된 어사에서 발달된 y탈락규칙이 미약하나마 비경구개자음이 선행된 어사에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산되어 갔으나 선행자음이 없는 경우

에까지는 아직 그 적용 범위가 확산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의 Ⅱ.1~Ⅱ.3에서 살펴본 각 방언 유형의 실현 빈도를 선행자음의 유무와 성질에 따라 유별하여 표로 보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¹⁵⁾

[표 6] 선행자음에 따른 방언형의 실현 빈도

	선행자음 없음	순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y무위형 (%)	659.5/668.5 (98.7)	206.5/1097 (18.8)	0/1124 (0)	166.5/283.5 (58.7)	49.5/188.5 (26.3)
y순행동화형 (%)	9/668.5 (1.3)	873.5/1097 (79.6)	0/1124 (0)	116/283.5 (40.9)	133/188.5 (70.5)
y탈락형 (%)	0/668.5 (0)	17/1097 (1.6)	1124/1124 (100)	1/283.5 (0.4)	6/188.5 (3.2)
합계(%)	100	100	100	100	100

4. 기타 유형

일부 ‘ㄷ’의 이전 단계의 음성형인 *yɐ는¹⁶⁾ 대부분의 방언에서는 yə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ㄷ’의 변화 예로 취급되었으나 몇몇 지역 방언에서는 yɐ가 그대로 실현되거나 yɐ의 e가 a로 바뀜으로써 ‘ㄷ’의 변화와는 직접적 관련을 가지지 않는 유형에 yɐ, ya, e, a 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변화 과정을 보인 것으로 iə형이 있는데 다음에서는 이들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5) 다음의 2.4에서 볼 수 있는 yɐ형과 ya형은 y무위형에 포함시킬 수 있고, e형과 a형은 y탈락형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iə형은 성절음화형으로 독립시킬 수도 있었으나 전자의 경우는 이 연구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yə의 변화와는 거리가 있고, 후자의 경우는 단 한 개의 예만 발견되기 때문에 통계 처리 과정에서는 이들을 제외시켰다.

16) 이기문(1972:127)에서는 15세기 국어에서 모음조화에 어긋난 ‘여라, 야라(諸)/여덟(八), 여드래(八日)’로부터 ‘*yɹ’를 재구하였으며, 이 ‘*yɹ’는 현대 방언에서 ‘yə, ya, yɹ’ 등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yɐ형은 ‘여덧’에 대응되는 제주도 방언형 ‘yɐra, yɐrai’에서 발견되는 유형이다. 이 yɐ는 중세국어 이전부터 쓰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부분의 방언에서는 *yɐ>yə 변화를 경험하였으나 제주방언에서는 아직도 그것이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e형은 ‘겔, 거드랑, 겹옷’에 대응되는 제주도 방언형 ‘줏, 즈드랑, 줍옷’에서 발견되는 유형이다. 이 경우의 모음 e는 원래 이중모음 *ye이었으나 선행자음 ‘ㄱ’가 구개음화되어 ‘ㅈ’로 바뀌자 [+palatal] 자질의 중복을 꺼려 *ye의 y가 탈락되어 나타난 것(čɐ<*čye<*kyɐ)으로 해석된다.¹⁷⁾

ya형은 ‘여우’에 대응되는 경북(10) 및 경남(6)의 방언형 ‘야수, 야시, 야쟁이’에서 발견되는 유형인데, 이 유형은 중세국어 이전 단계의 *yɐ가 이들 지역에서 e>a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나타난 유형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a형은 ‘거드랑, 겔’에 대응되는 경북(14) 및 경남(3)의 방언형 ‘자드랑, 짚’에서 발견되는 유형인데, 이 a도 원래는 ya이었으나 선행자음이 ‘ㄱ>ㅈ’로 구개음화되자 y가 탈락되고 a만 남은 것으로 해석된다.

ia형은 ‘ㄱ’가 앞에서 본 y순행동화규칙이나 y탈락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것의 y가 성절음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유형은 전남 담양에서 실현된 ‘병’의 방언형 piəŋ에서 발견된다.¹⁸⁾

17) 정승철(1995:62-74)에서도 본고에서와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본고에서 제시한 어사들 이외에도 중세국어에서 ‘ㄱ’를 가진 어사들이 제주방언에서 yɐ(>ɐ)로 대응되어 실현되는 다수의 어사들을 제시하고 있다.

18) 최학근(1994)에는 자음을 선행시킨 yɐ가 많은 지역에서 ia로 바뀐 예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들은 yɐ>ia가 하나의 변화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ㅼ: [p'iək-t'a:gu](<전남>곡성), [p'iət-tɛ](<전남>화순)// 혀: [h'ia-badak](<충북>영동, 옥천, <전북>전주, 진안, <강원>영월, 평창, 횡성), [h'ia-p'adak](<경북>봉화, 울진 외 3개 지역, <충북>괴산, <전남>목포, 구례, 곡성)// 며느리: [miənuri](<전남>구례 외곡리)// 별: [p'ia:](<전남>광양, 진상, 구례, 곡성), [p'ia](<전남>장성, 담양 외 5개 지역, <전북>순창, 정

지금까지 살펴본 25개 어사의 방언형과 그 실현 빈도를 표로 보이면 [표 7]과 같다.

[표 7] 어사별 방언형과 실현 빈도

어사 \ 방언형	yə	yɨ	yɜ	yi	yE	ye	e	E	ɛ	we	ö	i
머느리	13.5	7	1				79	17.5				20
멀치	26					0.5	66.5	26.5				18.5
배개	6.5						33	6				75.5
벼락	16					1.5	76.5	38				6
벼룩	9						88.5	20				20.5
벼슬	20.5					1	60.5	23.5				26.5
	78	9.5			2		20.5	11				16
빠	19.5					0.5	72	24.5				21.5
소계 (%)	189 (17.1)	16.5 (1.5)	1 (0.0)		2 (0.2)	3.5 (0.3)	496.5 (45.0)	167 (15.1)				204.5 (18.5)
설희												
썰다												
썰다												
췌												
쳐녀												
소계												
겨	č						20	8	2			2
겨드랑	č						1	5				
겨울	č											
겉웃	č											
결	č											
소계							21 (4.8)	13 (3.0)	2 (0.5)			2 (0.5)
혀	s(')						47.5	23.5	2	0.5	14	4
형	s											8
소계 (%)							47.5 (25.4)	23.5 (12.6)	2 (1.1)	0.5 (0.3)	14 (7.5)	12 (6.4)
겨	k	11	4.5	5		2	13	8.5				29.5
겨드랑	k	16						2	1			
겨울	k	57.5	15	3			12	7				1
겉웃	k	27	2.5				1	1				
결	k	24		1								
소계 (%)		135.5 (52.8)	22 (8.6)	9 (3.5)		2 (0.8)	26 (10.1)	18.5 (7.2)	1 (0.4)			30.5 (11.9)
혀	h	2	0.5		0.5		4	5	0.5			2
형	h	38	3	6			6	10				5.5
소계 (%)		40 (45.0)	3.5 (3.9)	6 (6.7)	0.5 (0.6)		10 (11.2)	15 (16.9)	0.5 (0.6)			7.5 (8.4)

읍 외 6개 지역, <경기>개성, 장단, 연천, <경북>평해, 영천 외 3개 지역, <충남>공주, 천안, 금산, <충북>영동, <강원>강릉, 철원, <황해>금천, 연안, 해주 외 11개 지역, <함남>신고산, 안변, 덕원 외 12개 지역, <평남>평양, <평북>박천, 영변 외 3개 지역).

어사	방언형		yə	yɨ	yɜ	yi	yE	ye	e	E	ɛ	we	ö	i
여자			97	40						1				
영감			41	40		51								
여럿			84.5	41	11									
여우			88.5	19	8.5		5	0.5		2.5				
열			70	41	27									
소계 (%)			381 (55.2)	181 (26.2)	46.5 (6.7)	51 (7.3)	5 (0.7)	0.5 (0.1)		3.5 (0.5)				
총계 (%)			745.5 (21.6)	223 (6.5)	62.5 (1.8)	51 (1.5)	7.5 (0.2)	6 (0.2)	601 (17.4)	240.5 (7.0)	5.5 (0.2)	0.5 (0.0)	14 (0.4)	256.5 (7.4)
며느리														138
멀치														138
배개				1.5	13		2.5							138
벼락														138
벼룩														138
벼슬													6	138
병								1						138
빠														138
소계 (%)				1.5 (0.1)	13 (1.2)		2.5 (0.2)	1 (0.0)					6 (0.5)	1104 (100)
설흔			41	89	8									138
썰다			41	45.5		51.5								138
썰다			41	91		6								138
긋			41	92	4						1			138
처녀			41	38.5	1	34.5							23	138
소계 (%)			205 (29.7)	356 (51.6)	13 (1.9)	92 (13.3)				1 (0.1)			23 (3.4)	690 (100)
겨	č		0.5	28	4									64.5
겨드랑	č		21	78	1						1	12		119
겨울	č		10	21		5.5								36.5
겹웃	č		32.5	68	1						1			102.5
결	č		29	71								11		111
소계 (%)			93 (21.5)	266 (61.4)	6 (1.4)	5.5 (1.3)					2 (0.5)	23 (5.1)		433.5 (100)
혀	s(')		0.5	31.5										123.5
형	s		6.5	48.5	0.5									63.5
소계 (%)			7 (3.7)	80 (42.7)	0.5 (0.3)									187 (100)
겨	k													73.5
겨드랑	k													19
겨울	k			1									5	101.5
겹웃	k												4	35.5
결	k												2	27
소계 (%)				1 (0.4)									11 (4.3)	256.5 (100)
혀	h													14.5
형	h		5		1									74.5
소계 (%)			5 (5.6)		1 (1.1)									89 (100)

방언형 어사	ㅄ	ㅅ	ㅆ	ㅈ	ㅊ	ㅌ	기타					합계
							ㅁ	ㅂ	ㅅ	ㅈ	ㅊ	
여자												138
영감											6	138
여럿							1.5					138
여우								14				138
열												138
소계 (%)							1.5 (0.2)	14 (2.0)			6 (0.8)	690 (100)
총계 (%)	310 (9.0)	704.5 (20.4)	33.5 (1.0)	97.5 (2.8)	2.5 (0.1)	1 (0.0)	1.5 (0.0)	14 (0.4)	3 (0.1)	23 (0.7)	46 (1.3)	3450 (100)

III. 규칙의 전개 양상

15세기 국어 어두 음절에 사용되던 ‘ㄷ(yə)’가 현대국어에 이르는 과정에서 경험한 음운규칙에는 y순행동화규칙, y탈락규칙, ə>ɤ/ɜ/i/ 규칙, e>E/ε 규칙, e>i 규칙 등의 다양한 규칙들이 있음을 앞에서 보았다. 그런데 ə>ɤ/ɜ/i/ 규칙에 대해서는 앞의 II에서 그 개신지를 추정하였고, e>E/ε 규칙과 e>i 규칙의 개신지와 그 전과 양상에 대해서도 이미 오종갑(1998, 1999)에서 고찰한 바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y순행동화규칙과 y탈락규칙의 적용 빈도를 군 단위로 조사하여 그들의 개신지와 전과 경로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y순행동화규칙과 y탈락규칙이 적용된 빈도를 군 단위로 보면 [표 8]과 같고, 그것을 지도에 표시하면 각각 [지도 4], [지도 5]와 같다.

[표 8] 각 규칙의 지역별 적용 빈도

군명	동화 (%)	탈락 (%)	군명	동화 (%)	탈락 (%)	군명	동화 (%)	탈락 (%)	군명	동화 (%)	탈락 (%)	군명	동화 (%)	탈락 (%)
연천	20	20	평창	37	38	논산	22	46	광양	43	35	영천	48	27
파주	26	22	명주	38	30	대덕	24	40	영암	36	40	고령	44	36
포천	16	24	원성	36	36	금산	31	38	진도	29	38	달성	43	30
강화	20	20	영월	37	38	옥구	28	42	해남	36	40	청도	43	32
김포	20	20	정선	37	31	익산	24	46	강진	37	35	월성	49	31
고양	18	22	삼척	36	30	완주	24	42	장흥	36	40	거창	44	32

군명	동화 (%)	탈락 (%)	군명	동화 (%)	탈락 (%)	군명	동화 (%)	탈락 (%)	군명	동화 (%)	탈락 (%)	군명	동화 (%)	탈락 (%)
양주	12	20	진천	26	32	진안	34	34	보성	37	38	합천	48	32
남양	24	28	음성	36	34	무주	37	31	고흥	46	33	창녕	54	29
가평	20	34	증원	24	34	김제	28	42	여천	43	35	밀양	49	30
웅진	32	30	제원	28	26	부안	24	42	완도	37	38	울주	51	26
시흥	28	20	단양	38	32	정읍	28	48	영풍	39	28	함양	44	32
광주	8	32	청원	32	26	임실	32	40	봉화	38	28	산청	44	36
양평	32	24	괴산	36	34	장수	41	33	울진	41	25	의령	44	36
화성	28	26	보은	36	36	고창	36	44	문경	43	33	하동	44	36
용인	26	26	옥천	32	34	순창	32	44	예천	40	40	진양	44	36
이천	26	28	영동	40	34	남원	38	36	안동	37	35	함안	54	29
여주	34	26	서산	8	40	영광	33	46	영양	42	33	의창	46	38
평택	14	20	당진	16	44	장성	16	42	상주	40	32	김해	54	29
안성	16	28	아산	22	40	담양	33	46	의성	48	28	양산	47	35
철원	17	33	천원	16	38	곡성	27	44	청송	43	28	사천	48	32
화천	36	32	예산	18	40	구례	44	36	영덕	39	26	고성	48	32
양구	28	32	홍성	12	44	함평	35	43	금릉	44	36	남해	52	32
인제	31	31	청양	20	48	광산	29	46	선산	46	33	통영	50	33
고성	25	31	공주	20	40	신안	42	38	군위	48	31	거제	48	32
춘성	34	32	연기	16	48	무안	30	46	영일	41	31	북제	42	36
홍천	31	29	보령	20	34	나주	19	46	성주	53	27	남제	40	36
양양	27	27	부여	18	42	화순	31	42	칠곡	38	27			
횡성	23	35	서천	17	48	승주	39	40	경산	52	27			

[표 8]에 의거하여 각 지역별로 y순행동화규칙이 적용된 경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에서는 y순행동화규칙의 경우 가장 높은 적용률을 보이는 지역은 양평(32%), 여주(34%), 웅진(33%)이다. 양평은 인접한 여주(34%)가, 여주는 인접한 강원도의 원성(36%)과 충북의 음성(36%)이 상대적으로 높은 적용률을 보이므로 이들 지역으로부터 개신파가 전파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두 지역은 경기도의 동남부에 속한다. 그런데 이들 지역과는 달리 웅진의 경우는 서부 해안 지역에 속하는데도 30%대의 적용률을 보여 인접지역으로 방언이 전파되는 일반적 경향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는 이 지역에는 강한 세력을 지닌 전남의 서해안 지역으로부터 그 개신파가 전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3개 군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서는 10~20%대의 낮은 적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광주에서는 8%로서 매우 낮은 적용률을 보이기도 한다. 19개 군 전체의 적용률 평균은 22.1%로서 충남(18.7%) 다음으로 그 적용률이 낮은 도에 해당된다.

강원도에서는 y순행동화규칙의 경우 10개 군에서는 30%대의 적용률을 보이고, 4개 군(양구, 고성, 양양, 횡성)에서는 20%대, 1개 군(철원)에서는 10%대의 낮은 적용률을 보인다. 상대적으로 낮은 적용률을 보이는 양구, 고성, 양양, 횡성, 철원 중에서 횡성을 제외한 4개 군이 북부 지역에 해당되므로 y순행동화규칙은 남부 지역에서 북부 지역으로 그 개신파가 전파되어 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경북 지역으로부터 강원도의 남부 지역으로 개신파가 전파되어 북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5개 군 전체로 볼 때는 평균 31.5%의 적용률을 보여, 전국적으로 볼 때, 중간 정도의 적용률을 보이는 도에 해당된다.

충북의 경우에는 1개 군(영동)에서는 40%, 6개 군에서는 30%대, 3개 군에서는 20%대의 적용률을 보인다. 40%의 적용률을 보이는 영동 지역은 경북의 상주, 금릉이 각각 40%와 44%의 적용률을 보이므로 일찍부터 이들 지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30%대의 적용률을 보이는 6개 군 가운데 단양, 괴산, 보은, 옥천은 경북과 접경하고 있어 경북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음성과 청원은 경북으로부터 전파된 개신파가 괴산과 보은을 거쳐 전파된 것으로 이해된다. 20%대의 제원과 증원은 인접한 문경(43%)과 단양(38%)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충북 지역은 평균 32.8%의 적용률을 보여, 전국적으로 볼 때, 중간 정도의 적용률을 보이는 도에 해당된다.

충남의 경우는 전체 15개 군 가운데 7개 군이 10%대, 6개 군이 20%대로서 그 적용률이 낮은 편이다. 다만 금산이 31%의 적용률을 보이는데, 이는 인접한 영동(40%)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충남의 가장 서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산에서는 매우 낮은 8%의 적용률을 보

이다. 8%의 적용률을 보인 서산을 비롯하여 10%대의 적용률을 보인 당진(16 %), 예산(18%), 홍성(12%), 부여(18%), 서천(17%) 등지는 충남의 서부 지역에 속한다. 충남 지역은 평균 18.7%의 적용률을 보여 그 적용률이 가장 낮은 도에 해당된다.

전북의 경우는 장수가 41%로서 그 적용률이 가장 높고, 진안, 무주, 임실, 고창, 순창, 남원이 30%대의 적용률로서 그 다음으로 높은 적용률을 보이는데 장수를 비롯한 이들 지역은 전북의 동부와 남부 지역에 해당된다. 여타 지역은 20%대의 적용률을 보이는데 대체로 전북의 서부 지역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분포 경향은 경남북으로부터 전파되어 온 개신파가 전북의 동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거쳐 서부 지역으로 전파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북 지역은 평균 31.2 %의 적용률을 보여, 전국적으로 볼 때, 중간 정도의 적용률을 보이는 도에 해당된다.

전남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40%대의 적용률을 보이는 지역은 구례, 신안, 광양, 고흥, 여천인데 이들 지역은 전남의 동부 및 해안 지역에 해당된다. 이들 지역에서 적용률이 높은 것은 경남에 접경하여 있거나 해로를 통해 일찍부터 개신파가 전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여타 지역은 이 지역들로부터 개신파가 전파되어 12개 군에서는 30%대의 적용률을 보이거나 장성, 나주, 곡성, 광산, 진도에서는 10-20%대의 상대적으로 낮은 적용률을 보인다. 전남 지역은 평균 34.5%의 적용률을 보여, 전국적으로 볼 때, 중간 정도의 적용률을 보이는 도에 해당된다.

경북의 경우는 전체 23개 군 가운데 2개 군(성주, 경산)에서는 50%대의 적용률을 보이는데 이 두 지역은 경북의 남부 지역에 해당된다. 그리고 16개 군에서는 40%대의 적용률을 보여 그 적용률이 대체로 높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30%대의 적용률을 보이는 지역은 5개 군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영풍, 봉화, 안동, 영덕은 북부 지역에 해당되고, 칠곡은 남부 지역에 해당된다. 이상과 같은 분포 경향은 남부 지역이 북부 지역보다 그 적용률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y순행동화규칙의 개신파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전파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경북 지

역은 평균 43.4%의 적용률을 보여, 전국적으로 볼 때, 경남 다음으로 그 적용률이 높은 도에 해당된다.

경남의 경우는 전체 19개 군 가운데 6개 군이 50%대, 13개 군이 40%대의 적용률을 보여 매우 높은 적용률을 보인다. 그런데 50%대의 적용률을 가진 지역은 창녕, 울주, 함안, 김해, 남해, 통영으로서 앞의 넷은 경남의 동부 지역에 속하고, 뒤의 둘은 남부 해안·도서 지역에 속하므로 서부 지역보다는 이들 지역에서의 적용률이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경남 지역은 평균 48.1%의 적용률을 보여, 전국적으로 볼 때, 그 적용률이 가장 높은 도에 해당된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평균 41.0%의 적용률을 보여 경남북 다음으로 높은 적용률을 보인 도에 해당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각 지역별 적용률과 [지도 4]를 종합해 보면, y순행동화규칙의 경우 그 적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50%대의 적용률을 보인 지역은 전국에서 8개 군이 있는데, 그 가운데 경북이 2개 군, 경남이 6개 군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포상의 차이만을 고려한다면 y순행동화규칙의 개신지는 경남 지역이었으리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 규칙의 개신지를 이렇게 추정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50%대의 적용률을 가진 지역은 창녕(54%), 울주(51%), 함안(54%), 김해(54%), 남해(52%), 통영(50%) 등지인데, 이들 지역이 한 곳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북의 성주(53%), 경산(52%)도 앞의 6개 군에 뒤지지 않는 높은 적용률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2개 군에서 50%대의 적용률을 보인 경북 남부 지역과 경남 지역을 포괄하여 y순행동화규칙의 개신지로 추정해 두기로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y순행동화규칙은 경남지역과 경북 남부 지역에서 그 개신파가 발생하여 북쪽으로는 경북 북부 지역을 거쳐 강원도 지역으로 전파되어 갔으며, 서쪽으로는 전남북과 충북 지역으로 전파되어 갔으나 한반도의 서쪽에 위치한 충남과 경기, 그리고

전북의 서부지역에는 개신파가 늦게 도달하여 그 적용률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해안 지역에서 y순행동화규칙의 적용률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제주도의 경우는 해로를 통해 개신파가 전파되어 경남보다 다음으로 높은 적용률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에서는 [표 8]과 [지도 5]에 의거하여 각 지역별로 y탈락규칙이 적용된 양상을 간략히 분석해 보기로 한다.

먼저 경기도의 경우는 y탈락규칙의 적용률은 최저 20%, 최고 34%인데, 16개 군에서는 20%대의 적용률을, 3개 군에서는 30%대의 적용률을 보인다. 19개 군의 평균은 24.7%로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적용률을 보인다.

강원도의 경우는 최저 27%, 최고 38%의 적용률을 보이는데, 2개 군에서는 20%대, 13개 군에서는 30%대의 적용률을 보인다. 15개 군 전체의 평균 적용률은 32.3%로서, 전국적으로 볼 때, 보통 정도의 적용률을 보이는 지역에 해당된다.

충북의 경우는 최저 26%, 최고 36%의 적용률을 보이는데, 2개 군에서는 20%대, 8개 군에서는 30%대의 적용률을 보인다. 10개 군 전체의 평균 적용률은 32.2%로서, 전국적으로 볼 때, 보통 정도의 적용률을 보이는 지역에 해당된다.

충남의 경우는 최저 34%, 최고 48%의 적용률을 보이는데, 3개 군에서는 30%대, 12개 군에서는 40%대의 적용률을 보인다. 15개 군 전체의 평균 적용률은 42.0%로서, 전국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적용률을 보인다.

전북의 경우는 최저 31%, 최고 48%의 적용률을 보이는데, 4개 군에서는 30%대, 9개 군에서는 40%대의 적용률을 보인다. 13개 군의 평균 적용률은 40.3%로서, 전국적으로 볼 때, 충남 다음으로 적용률이 높다.

전남의 경우는 최저 33%, 최고 46%의 적용률을 보이는데, 9개 군에서는 30%대, 13개 군에서는 40%대의 적용률을 보인다. 22개 군 전체의 평균 적용률은 40.3%로서 전북과 동일하다.

경북의 경우는 최저 25%, 최고 40%의 적용률을 보이는데, 10개 군에서는 20%대, 12개 군에서는 30%대, 1개 군에서는 40%대의 적용률

을 보인다. 23개 군 전체의 평균 적용률은 30.6%로서, 전국적으로 볼 때, 경기도 다음으로 낮은 적용률을 보인다.

경남의 경우는 최저 26%, 최고 38%의 적용률을 보이는데, 4개 군에서는 20%대, 15개 군에서는 30%대의 적용률을 보인다. 19개 군 전체의 평균 적용률은 32.5%로서, 전국적으로 볼 때, 보통 정도의 적용률을 보이는 지역에 해당된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북제주와 남제주에서 다 같이 36%의 적용률을 보여 전국적으로 볼 때, 다소 높은 적용률을 보이는 지역에 해당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y탈락규칙의 경우는 그 적용률이 최저 20%에서 최고 48%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 가운데 40% 이상의 적용률을 지닌 지역을 찾아보면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에서는 한 곳도 발견되지 않고, 충남에서는 12/15개 군이, 전북에서는 9/13개 군이, 전남에서는 13/22개 군이, 경북에서는 1/23개 군이 발견된다. 이러한 수치로 볼 때 y순행동화규칙의 개신지는 한반도의 서쪽 지역에 속하는 충남, 전북, 전남으로 압축된다.

다시 이 군들 가운데서 46% 이상의 적용률을 보인 군들로 그 범위를 압축하면 충남에서는 4개 군(청양(48%), 연기(48%), 서천(48%), 논산(46%))이, 전북에서는 2개 군(정읍(48%), 익산(46%))이, 전남에서는 5개 군(영광(46%), 담양(46%), 광산(46%), 무안(46%), 나주(46%))이 발견되어 어느 한 도로 집중된 모습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를 다시 보면 최고의 적용률인 48%의 적용률을 보인 지역이 타도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도별 적용률의 평균치에서도 충남이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y탈락규칙의 개신지를 충남 지역(대체로 동남부 지역)으로 추정해 두고자 한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y탈락규칙은 충남 지역을 개신지로 하여 남쪽으로는 전북·전남의 서부 및 중부 지역으로 그 개신파가 먼저 전파된 다음 다시 동부 지역을 거쳐 경남북으로 전파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충북을 거쳐 다시 경북과 강원도 지역으로 전파되

었으며, 북쪽으로는 경기도 지역으로 개신파가 전파되어 갔으나 그 전과 속도는 매우 느렸던 것으로 해석된다.

yə의 y에 초점을 맞출 때 y무위형은 이 장에서 논의되는 규칙의 전개 양상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나 y순행동화형, y탈락형과 더불어 상보적 관계를 형성하므로 y무위형의 전국적 분포를 알아보는 것도 yə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y무위형의 실현율은 y순행동화형의 실현율과 y탈락형의 실현율을 합한 수를 100%에서 뺀 수치가 되는데 그것은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고, 그 분포 양상을 지도에 표시하면 [지도 6]과 같다.

[표 9] y무위형의 실현 빈도

군명	비율 (%)	군명	비율 (%)	군명	비율 (%)	군명	비율 (%)	군명	비율 (%)	군명	비율 (%)	군명	비율 (%)	군명	비율 (%)
연천	60	안성	56	중원	42	부여	40	영광	21	보성	25	영일	27	진양	20
파주	52	철원	50	제원	46	서천	35	장성	42	고흥	21	성주	20	함안	17
포천	60	화천	32	단양	30	논산	32	담양	21	여천	22	칠곡	35	의창	17
강화	60	양구	40	청원	42	대덕	36	곡성	29	완도	25	경산	20	김해	17
김포	60	인제	38	괴산	30	금산	31	구례	20	영풍	33	영천	25	양산	17
고양	60	고성	44	보은	28	옥구	30	함평	22	봉화	34	고령	20	사천	20
양주	68	춘성	34	옥천	34	익산	30	광산	25	울진	33	달성	27	고성	20
남양	48	홍천	40	영동	26	완주	34	신안	21	문경	23	청도	25	남해	16
가평	46	양양	46	서산	52	진안	32	무안	25	예천	20	월성	20	통영	17
웅진	38	횡성	42	당진	40	무주	31	나주	35	안동	27	거창	24	거제	20
시흥	52	평창	25	아산	38	김제	30	화순	27	영양	25	합천	20	북제	21
광주	60	명주	32	천원	46	부안	34	승주	21	상주	28	창녕	17	남제	24
양평	44	원성	28	예산	42	정읍	24	광양	22	의성	24	밀양	21		
화성	46	영월	25	홍성	44	임실	28	영암	24	청송	28	울주	22		
용인	48	정선	31	청양	32	장수	25	진도	33	영덕	35	함양	24		
이천	46	삼척	34	공주	40	고창	20	해남	24	금릉	20	산청	20		
여주	40	진천	42	연기	36	순창	25	강진	27	선산	21	의령	20		
평택	66	음성	30	보령	46	남원	26	장흥	24	군위	21	하동	20		

[표 9]에 의하면, y무위형의 실현율 평균이 경기도(53.2%), 강원도(36.1%), 충북(35.0%), 충남(39.3%), 전북(28.4%), 전남(25.3%), 경북(25.7%), 경남(19.4%), 제주도(22.5%)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비율은 경기도가 y무위형의 실현율이 가장 높고, 경기도를 제외한 중부지역(충남북, 강원)이 30%대로서 그 다음으로 높으나, 남부 지역(전남북, 경남북)과 제주도는 10-20%대로서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려 준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세국어의 어두 음절 중성에 ‘ㄷ’를 가지고 있던 25개 어사들의 현대국어 방언형을 《한국방언자료집》에서 찾아 그들의 변화 과정에 적용된 규칙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각 지역(군 단위)에서 그들이 적용된 비율은 어떠한지를 통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각 규칙의 개신지와 그 전개 양상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특히, ‘ㄷ’의 부음 ‘y’가 그것의 변화에 직접 관여하였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면서 현대국어 속에서 영남방언이 차지하는 위치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밝혀진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1) ‘ㄷ’는 통시적으로 두 방향으로의 변화를 경험하였는데, 하나는 부음 ‘y’가 주음 ‘ㄷ’에 동화력을 행사하는 y순행동화규칙에 의한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palatal] 자질의 중복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y탈락 규칙에 의한 변화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선행자음의 유무와 성질에 따라 그 적용률에 차이를 보이는데, 그것은 조음의 난이도와 관련이 있다.

(2) y순행동화규칙의 개신파는 영남지역(경남과 경북 남부지역)에서 발달하였으며, 그것은 북쪽으로는 경북 북부지역을 거쳐 강원지역으로, 서쪽으로는 전남북과 충북을 거쳐 충남과 경기지역으로, 남쪽으로는 해로를 통해 제주지역으로 전파되어 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충남·경기 지역과 전북의 서부지역은 개신파가 늦게 전파되어 이 규칙의

적용률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편이다.

(3) y탈락규칙은 충남지역(대체로 동남부지역)에서 발달하였으며, 그 개신파는 남쪽으로는 전북·전남의 서부 및 중부 지역으로 먼저 전파된 다음 다시 동부지역을 거쳐 경남북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충북을 거쳐 다시 경북과 강원도 지역으로 전파되었으며, 북쪽으로는 경기도 지역으로 전파되어 갔으나 그 전파 속도는 매우 느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4) ‘ㄷ’의 주음 ‘ㅌ’는 부음 y와 상관없이 $\text{ə} > \text{ɥ}/\text{ɰ}/\text{i}$ 변화를 경험하는데, $\text{ə} > \text{ɥ}$ 규칙, $\text{ə} > \text{ɰ}$ 규칙, $\text{ə} > \text{i}$ 규칙의 개신지는 각각 경북 북부지역, 경기도 동남부지역, 경기도 남부지역인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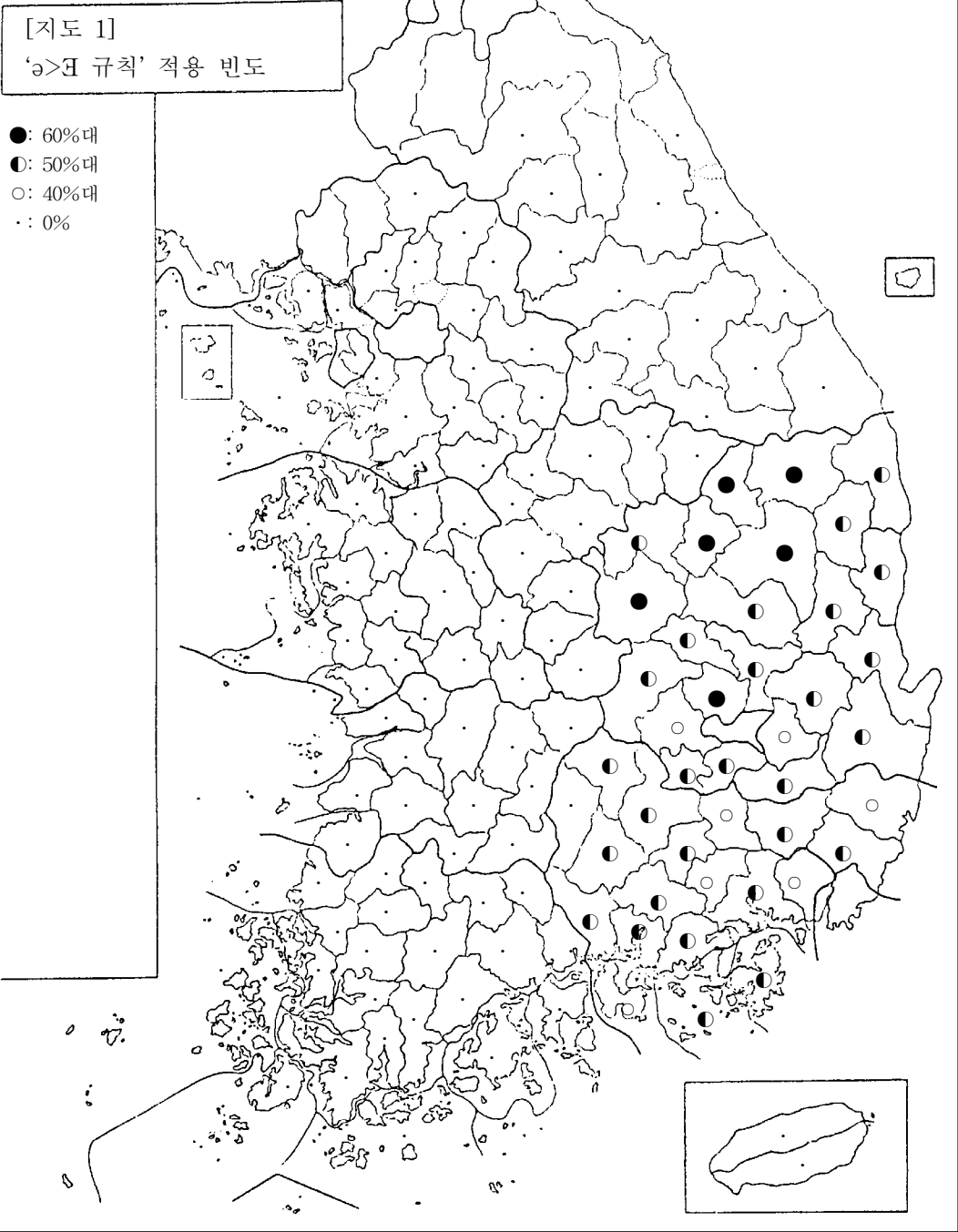
주제어 : 영남방언(Yeongnam Dialect), 음운론적 변화(Phonological Change), y탈락규칙(y-deletion rule), y순행동화규칙(y-progressive assimilation rule), y탈락규칙의 개신지(birthplace of y-deletion rule), y순행동화규칙의 개신지(birthplace of y-progressive assimilation rule), ‘ $\text{ə} > \text{ɥ}$ ’ 규칙(‘ $\text{ə} > \text{ɥ}$ ’ rule), ‘ $\text{ə} > \text{ɰ}$ ’ 규칙(‘ $\text{ə} > \text{ɰ}$ ’ rule), ‘ $\text{ə} > \text{i}$ ’ 규칙(‘ $\text{ə} > \text{i}$ ’ rule)

참고문헌

- 곽충구(1982), “아산지역어의 이중모음 변화와 이중모음화,” 《방언》6.
 구현옥(1998), 《함안 지역어의 음운 변동 현상》, 한국문화사.
 권재선(1981), “청도방언의 모음체계 변천의 연구,” 《한국언어문학논집》(대구대) 1.
 김덕호(1992), “경북 상주지역어의 음운 연구,” 《문학과 언어》(경북대)13.
 김영송(1973), “김해방언의 음운,” 《김해지구 종합 학술조사 보고》(부산대).

- 김완진(1963), “국어 모음체계의 신고찰,” 《진단학보》24.
- 김정태(2004), “천안 방언 ‘어→으’의 모음상승에 대하여,” 《한글》266.
- 김진우(1967), “Some Phonological Rules in Korean,” 《어학연구》5.
- 김택구(1991), “경상남도방언의 지리적 분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건국대).
- 김형주(1983), “남해방언의 음운 연구,” 《석당논총》(동아대) 7.
- 민원식(1982), “문경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석사학위논문(충북대).
- 박명순(1982), “경남 거창 방언 연구,” 《논문집》(청주사대) 11.
- 박정수(1993), “변동규칙에 의한 경남방언의 분화 연구,” 박사학위논문(동아대).
- 박종희(1993), “중세국어 ‘ㄷ’의 통시적 발달과 방언분화,” 《국어 음운론 연구(Ⅱ)》, 원광대 출판국.
- 박지홍(1975), “양산방언의 음운,” 《어문학》(한국어문학회) 33.
- 박창원(1983), “고성지역어의 모음사에 대하여,” 《국어연구》54.
- 배병인(1983), “산청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석사학위논문(고려대).
- 백두현(1985), “상주 화북지역어의 음운론적 특징,” 《천시권박사 환갑기념 국어학논총》.
- 백두현(1992), 《영남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태학사.
- 서보월(1984), “안동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안동문화》(안동대) 5.
- 성인출(1984), “창녕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석사학위논문(계명대).
- 오종갑(1988), “ㅈ, ㅊ, ㅌ, ㅍ의 변천,” 《한국학논집》(계명대) 10.
- 오종갑(1998), “ㄷ, ㅌ의 변화와 관련된 영남방언의 특성과 그 전개,” 《김영태 박사 환갑기념 논문집》.
- 오종갑(1999), “영남방언의 음운론적 특성과 그 전개,” 《한민족어문학》(한민족어문학회) 35집.
- 유창돈(1963), 《언문지주해》, 신구문화사.
- 이광호(1978), “경남방언의 이중모음에 대하여,” 《국어학》(국어학회) 6집.
- 이기문(1972), 《국어음운사연구》, 한국문화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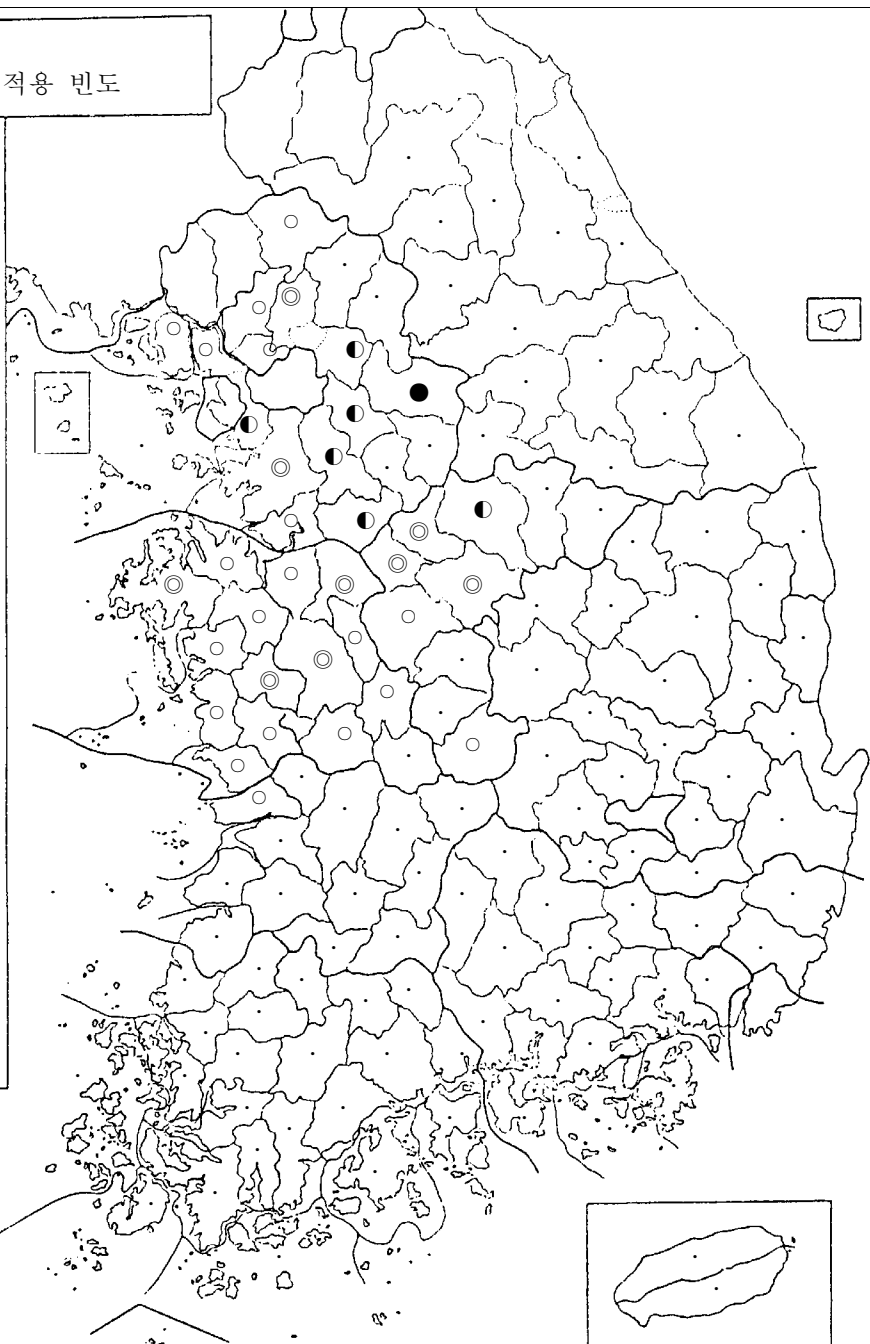
- 이동화(1984), “고령지역어의 모음순행동화,” 《영남어문학》 11집.
- 이병근(1979), “모음체계와 비원순모음화,” 탑출판사.
- 이상규(1984), “울주지역어의 음운,” 《어문논총》(경북대) 19집.
- 전광현(1979), “경남 함양지역어의 음운론적 고찰,” 《동양학》(단국대)9.
- 정승철(1995),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국어학회.
- 정 철(1991), 《경북 중부 지역어 연구》, 경북대 출판부.
- 최명옥(1980), 《경북 동해안 방언 연구》, 영남대 출판부.
- 최명옥(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 출판부.
- 최명옥(1998), “경남 합천지역어의 음운론,” 《한국어 방언 연구의 실제》, 태학사.
- 최임식(1984), “19세기 후기 서북방언의 모음체계,” 석사학위논문(계명대).
- 최전승(1987), “이중모음 ‘외, 위’의 단모음화 과정과 모음체계의 변화,” 《어학》(전북대) 14.
- 최태영(1978), “전주방언의 이중모음,” 《국어문학》(전북대) 19.
- 최학근(1994), 《증보 한국방언사전》, 명문당.
- 허 웅(1985), 《국어 음운학》, 샘 문화사.



[지도 2]

‘ $a > 3$ 규칙’ 적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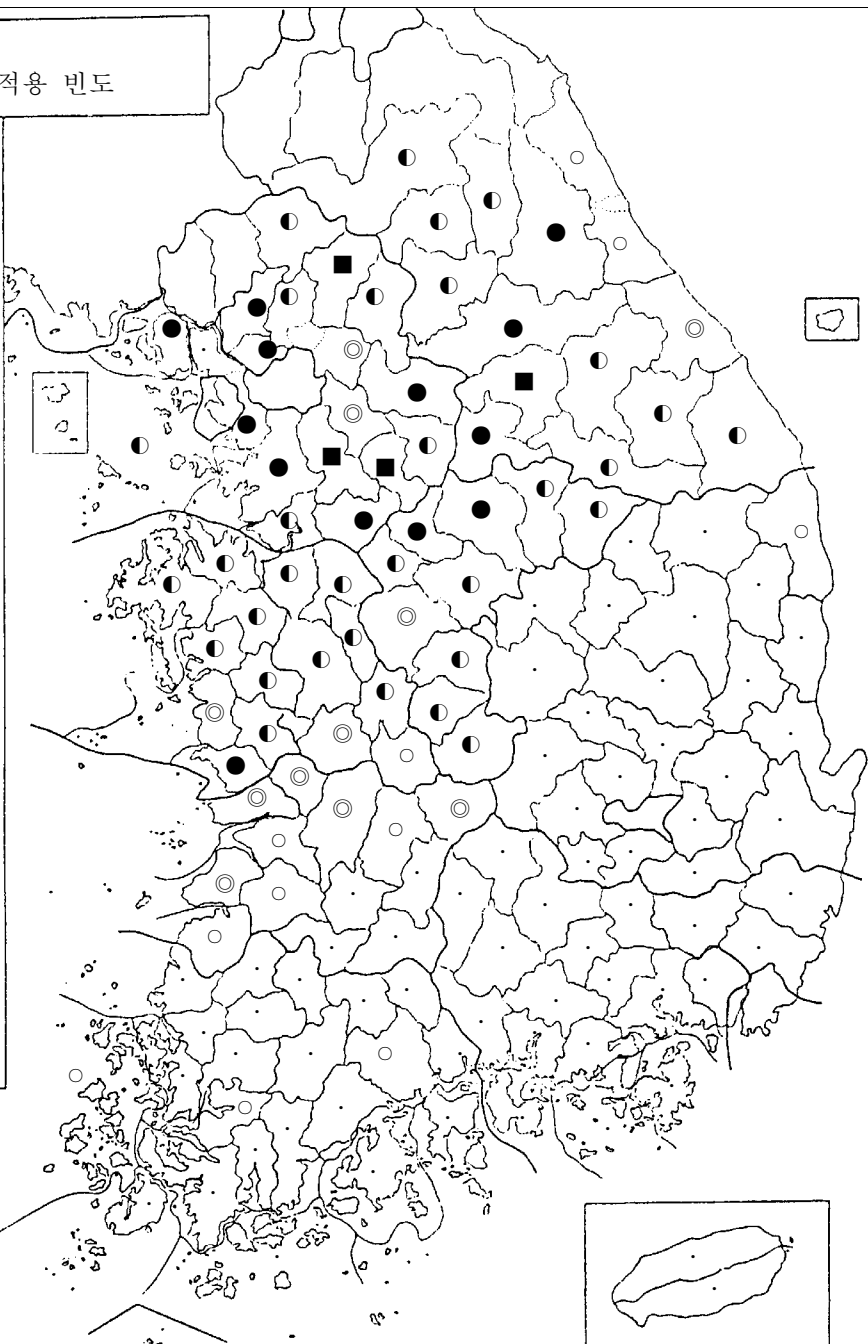
- : 30%대
- ◐: 20%대
- ◑: 10%대
- : 9%이하
- : 0%



[지도 3]

‘ə>i 규칙’ 적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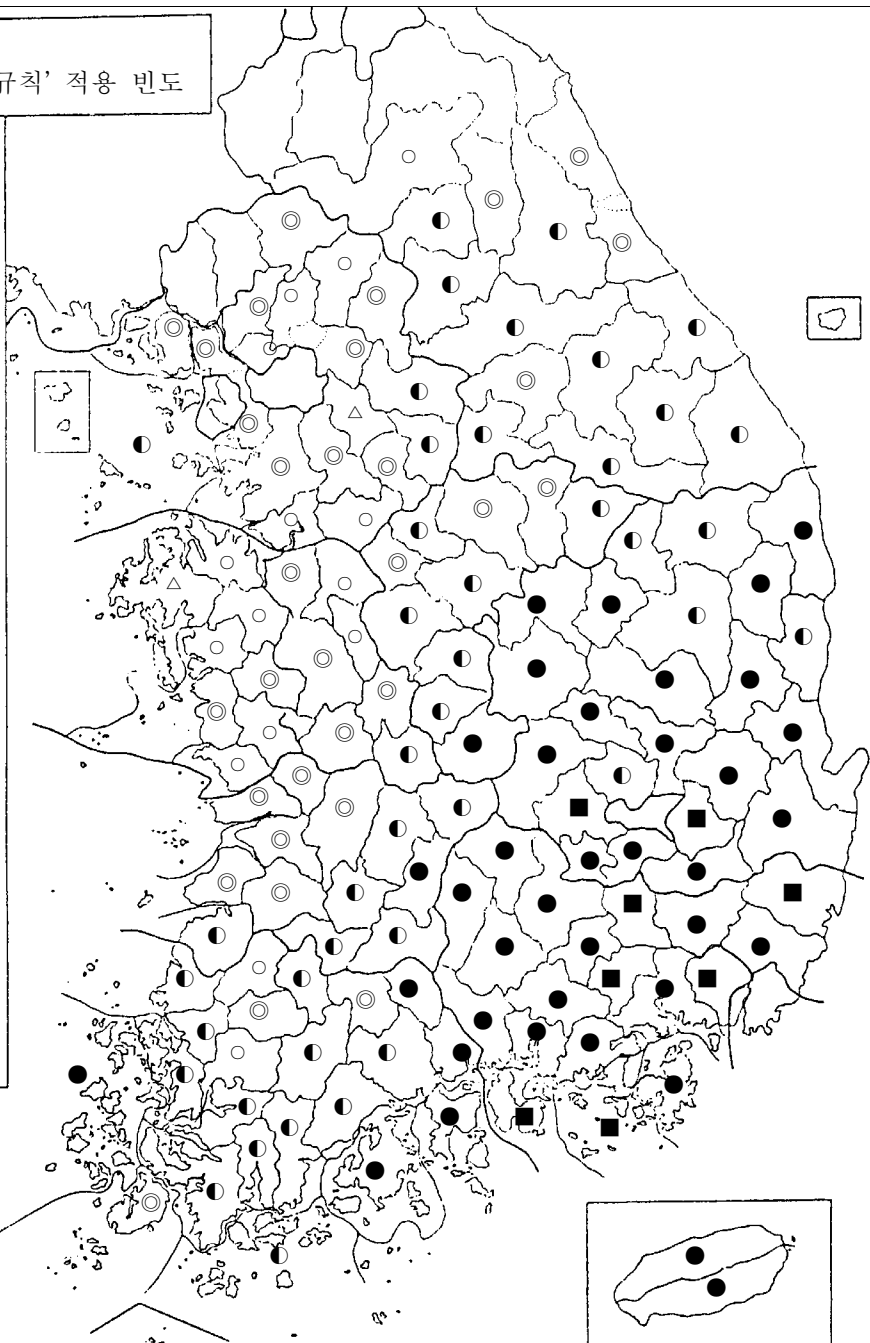
- : 80%대
- : 70%대
- ◐: 60%~50%대
- ◑: 40%~30%대
- : 20%대 이하
- ∴ 0%



[지도 4]

‘y순행동화 규칙’ 적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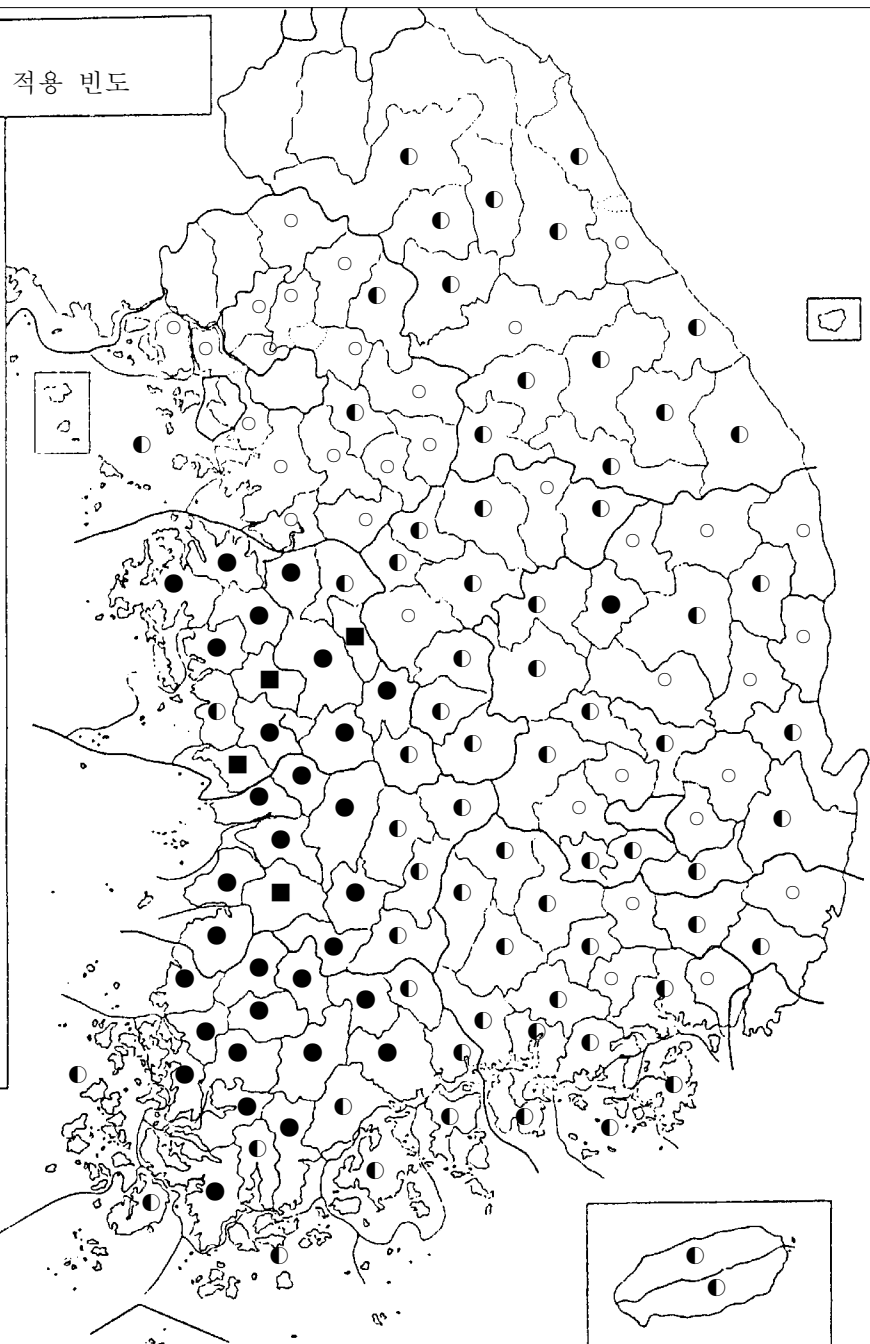
- : 50%대
- : 40%대
- ◐: 30%대
- ◑: 20%대
- : 10%대
- △: 9% 이하



[지도 5]

‘y탈락규칙’ 적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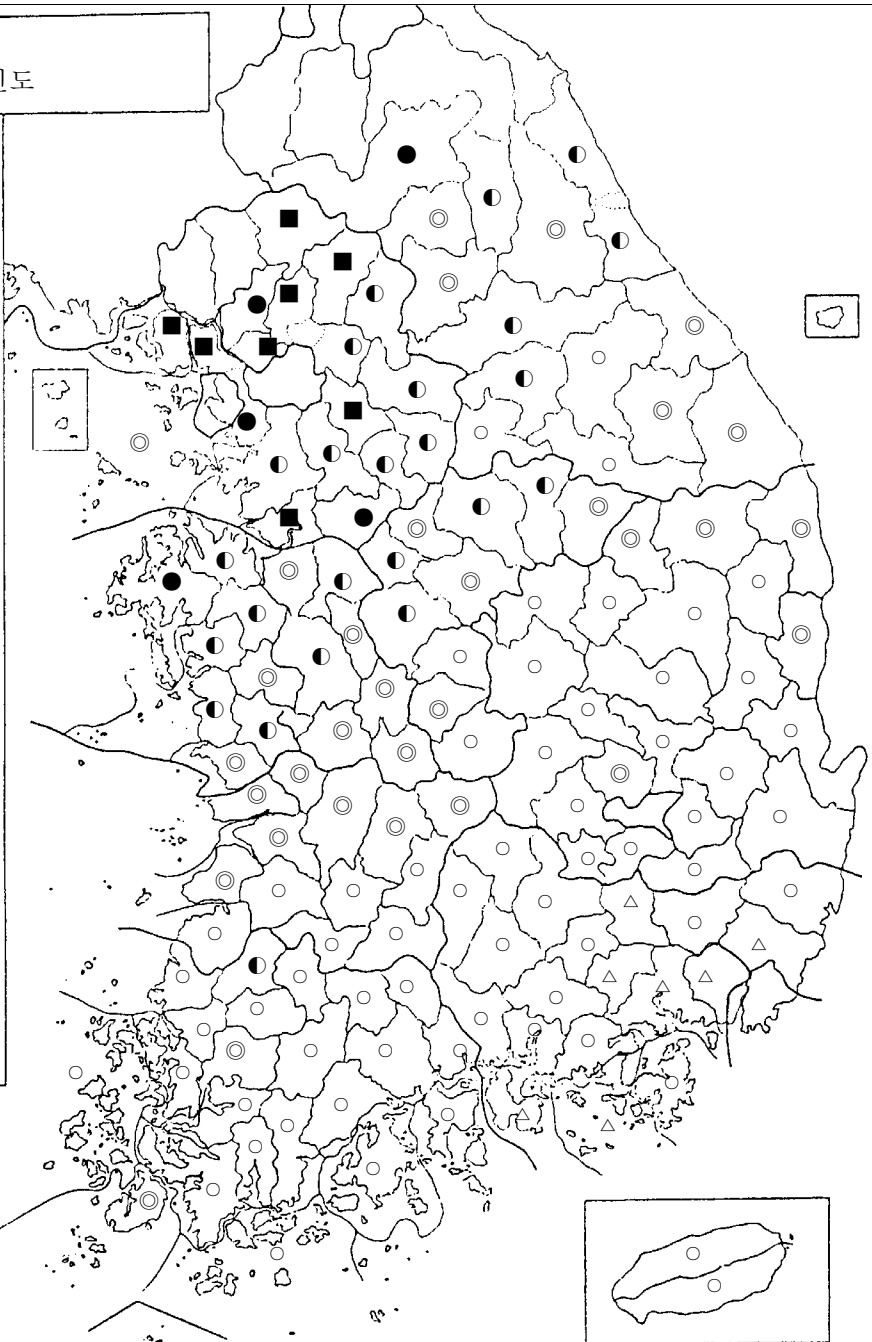
- : 48%
- : 46-40%
- ◐: 30%대
- : 20%대



[지도 6]

‘y무위형’ 빈도

- : 60%대
- : 50%대
- ◐: 40%대
- ◎: 30%대
- : 20%대
- △: 10%대



<Abstract>

The Phonological Change of ‘ㄷ(yə)’ in Yeongnam Dialect

Oh, Jong-gap

This study was designed to find ①what phonological rules had existed by looking into the historical changes of ‘ㄷ(yə)’ and ②what the spread course of each rule had been by comparing its application percentages by province groups. As a result, the following five conclusions were reached.

1. ‘ㄷ(yə)’ had changed into two different ways; ①the y-deletion form(‘yə>ə’) when a palatal consonant was in front of ‘yə’, or ②the y-progressive assimilation form(‘yə>ye/e’) when other consonants or no consonant was in front of it.

2. It was thought that the birthplace of y-deletion rule was Chungnam Province and that of y-progressive assimilation rule was Yeongnam Province.

3. Both y-deletion rule and y-progressive assimilation rule had spread from their birthplaces into all provinces of South Korea.

4. The relic ‘yə’ that had not changed into the above-mentioned two forms had changed into three different ways; ‘yɛ’ form(by ‘ə>ɛ’ rule application) or ‘yɜ’ form(by ‘ə>ɜ’ rule application) or ‘yi’ form(by ‘ə>i’ rule application).

5. It was thought that the birthplace of ‘ə>ɛ’ rule was North Gyeongbuk Province, that of ‘ə>ɜ’ rule was Southeast Gyeonggi Province, and that of ‘ə>i’ rule was South Gyeonggi Province.

오종갑

경북 경산시 대동 214번지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화: 053-810-2112(연구실), 016-819-0836

e-mail: ohjk@yumail.ac.kr

이 논문은	2005년	4월	30일	투고하여
	2005년	5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5년	6월	30일	간행함